



Presbyterian Church
of Mauritius
Eglise Presbytérienne
de Maurice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파송 선교사

최인규 박정희 선교사는 총회선교사로
아프리카 인도양 모리셔스와 인근섬에서
모리셔스 장로교단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모리셔스 선교사 최인규 박정희입니다.



모리셔스입니다.

샬롬! 땅끝에 있는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모리셔스는 이번달부터 여름이 찾아 왔습니다. 모리셔스도 한국같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4계절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더운 여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모리셔스의 여름은 11월부터 3월까지로 보통 싸이클론이라고 불리는 태풍과 함께 합니다.

모리셔스는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 이 3대종교가 모여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구의 과반수를 이루는 힌두교의 색깔이 강하고, 나라의 전체일정이 힌두교 명절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중에서도 힌두교의 가장 큰 명절인 다왈리가 10월말에 끝난후부터는 연말까지 온나라가 휴가분위기로 쉬고 있습니다.

선교와 목회, 사역

* 교회 목회 사역:

오랫동안 기도했던 성 콜롬바교회의 카리부 카페가 11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개장을 계획했지만, 영업허가가 여러번 번복되어서 개장을 미룰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가 대부분 준비되었고, 외부주차장공사도 거의 마쳤습니다.

이 카페가 운영되면, 모리셔스에서는 최초로 교회가 운영하는 지역선교를 위한 공간이 되고, 교회 주변에 위치한 일반학교와 장애인학교의 학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할수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것입니다.

모리셔스는 현지인 대부분이 살고 있는 중부(저희 교회가 위치한)에는 차를 마실수 있는 커피숍이 없는 상황인데, 마침 10월부터 교회에서 50미터 거리에 전차역도 신축되어서, 더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 유치원 사역:

박정희 선교사가 사역하는 비아메뉴 유치원의 2022년 졸업식이 지난 11월 9일 열렸습니다.



왼쪽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최인규 선교사의 카카오톡과 연결됩니다.

최인규 선교사-010-9076-9065

박정희 선교사-010-9515-9065

총회세계선교부-02.741.4350

coolinny@gmail.com

비아베뉴 유치원은 모리셔스 장로교단의 성 피에르교회가 운영하는 기독교유치원입니다. 기독교유치원이지만, 그 지역사회에는 하나밖에 없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종교를 가리지 않고 많은 힌두교인과 무슬림들도 자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을 넘어서 주변의 발달장애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비아베뉴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시설과 교구재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동안 여러차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 은혜로 한결음 한결음 모두 포기하지 않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진도 사역:

지난 10월 한국에서, 성 콜롬바교회의 카리부센터에 위치할 '모리셔스 최초의 영어 어린이 도서관'을 위한 책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후에 책을 보니, 저희가 예상한것보다 훨씬 많은 책들이 도착해서, 몇주간의 분류작업을 거친후에, 모리셔스 장로교회 산하 5개교회에 골고루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모리셔스는 정부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선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여전히 프랑스어방언인 크레올로 의사소통을 하고,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의 영어 어린이 도서관 사역의 의미가 선교적으로도 큼니다.

최인규 박정희 최주은 최주아 선교사

- 1) 주아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모리셔스는 한국보다 학제가 1년 빠르기 때문에, 한국학제라면 내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야 하지만, 모리셔스에서는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졸업식을 잘 마쳤습니다.
- 2) 주은이는 내년부터 고등학교(4년제)를 시작합니다. 올해 다시 선교지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 은혜로 잘 극복한후에 좋은친구들을 만나고, 학업성적도 잘 나와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3) 박정희 선교사는 모리셔스에 와서, 오랫동안 한쪽귀의 청력이 약화되어 고생하다가, 현지인 의사에게 진료 받은후에, 한국에서 귀수술 받을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 4) 저희 가정은 11월말부터 약 한달정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모리셔스, Phoenix 성 콜롬바교회에서 최인규,박정희,최주은,최주아 선교사 드림

